

제 190 회 일본전문가 초청세미나

주제: 일본의 극우운동과 배외주의운동 : 그 계보와 영향관계를 둘러싸고

강연자: 히구치 나오토 (樋口直人) (일본 도쿠시마대학 부교수)

일본 히토츠바시대학 대학원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 도쿠시마대학 준교수로 재직 중인 히구치 나오토 선생의 '일본의 극우운동과 배외주의운동 : 그 계보와 영향관계를 둘러싸고' 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11 월 3 일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히구치 선생에 의하면 우익이라는 것은 에도시대의 국학을 기원으로 한다. 명치시대에서 전전에 걸쳐 조직화하여 정치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전후에는 가두선전차를 탄 '가선우익'이 일반적인 이미지로 대두되었지만 냉전종식에 의해 소련이라는 적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쇠퇴하였다. 전후 우익이 반공의 관점으로 친미였던 것에 반해, 1970 년대 즈음부터 등장한 신우익은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하여 반소반미를 표방하였다. 또한, 유럽의 연구에서는 공통항으로서 내셔널리즘과 배외주의에 관하여 주류파 보수보다 우편향된 주장을 하는 세력으로서 극우가 정의되었는데, 일본에서의 극우라 함은 유럽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점에 히구치 선생은 주목하였다.

필자가 극우세력으로 간주하는 정당 혹은 조직에 관한 개별적 연구는 이루어져왔으나, 이것을 극우로 간주하여 일본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히구치 선생은 특정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주류파 보수가 아닌 우편향된 주장, 행동을 하는 존재로 극우를 간주할 때에 극우의 범위는 의외로 넓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지금까지 충분히 관련지어지지 않았던 집단을 일본에서 사용되어오지 않은 극우라는 개념하에 일괄적으로 자리매김시키는 이런 시도는 서구 등과의 비교연구의 토양에 일본을 엮어서 극우세력의 특질을 해명하는 준비작업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와 더불어 배외주의 운동은 극우의 계보로부터 올바르게 도출되었으며 보수와의 연관성 하에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극우운동 속에 배외주의운동을 자리매김시키는 것에 연구의 목적이 있음을 히구치 선생은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일본형 배외주의라 함은 근린제국과의 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외국인 배척 움직임을 일컫는 말로 식민지청산과 냉전에 입각하였으며, 직접적인 표적이 되는 것은 재일외국인이지만 배척감정의 근거에 있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보다는 오히려 근린제국과의 역사적 관계인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의 증가나 일자리를 둘러싼 경합과 같은 외국에서의 배외주의를 만들어낸 요인은 일본형 배외주의를 설명할 때에 이렇다 할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다.

히구치 선생이 「불우원인설」, 「불안원인설」을 집요하게 비판해온 것은 그것이 3자관계의 난관에 봉착한 일본의 모습을 흐리고 본래 보아야 할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며, 「영원히 계속되는 아시아 멸시의 발로」라는 파악 역시도 전후 동아시아의 지정학이라는 개별적 역사요인을 놓치고 있다. 배외주의운동은 단순히 인종 차별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주류의 역사에 대하여 불협화음을 조성하는 이야기」를 구현하는 존재인 재일 한국인을 오욕의 역사와 함께 말살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수정주의는 배외주의의 모체이자 극우의 결절점으로, 배외주의운동은 그것으로부터 인터넷이라는 하위문화를 거쳐 데포르메(예술적 변형)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차별적 배상(Bashing)이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은 '일본회의'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성조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 권력체제에 의한 통제가 가능했으며, 배외주의운동은 '인터넷'이라는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미디어로 데포르메되어 탄생한 결과 다른 극우로부터도 따돌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서는 극우운동으로서 일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통항이 존재했으며, 역사수정주의의 하나의 변종으로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히구치 선생은 강연을 마무리했다.

질의응답

1. 일본회의와 종교우파의 접점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각 지방에 조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 종교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기반적 존재로서의 종교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2. 좌우의 역사적 자리매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에 대해서는 또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역사수정주의를 비롯한 역사적인 문제가 근본에 있다는 해석보다는 역사적 문제뿐 아니라 글로벌화하는 시장에 있어서 자영업자가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과 재일교포 문제 등 그 외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표1 일본회의가 여러 이데올로기를 아우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 일본회의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내셔널리즘에 바탕을 두고 배외주의, 역사수정주의, 전통주의 반공주의 등 여러 문제에 관여하므로 그 이벤트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4. 네트워크에 있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인 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영향력은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겠군요. 근린국들과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배외주의운동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집단 혹은 그들의 움직임은 건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운동 차원의 어떤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